



카누 용선 단일팀 감격의 **금물살**... 팔렘방 울려 퍼진 아리랑



“우리가 해냈어요”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 조정-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카누용선 500미터 여자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북 단일팀 북측 선수들이 감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 500m 중국에 3초차 압도적 승
국제 종합대회 첫 **금** ‘새역사’
세계탁구선수권 후 세번째 우승
남자팀은 11개국 중 7위에 올라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이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 사상 최초로 금메달 쾌거를 이뤄냈다. 카누 여자 남북 단일팀은 26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스포츠 시티 조정 카누 레가타 코스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 용선 500m 결선에서 2분 24초 788로 우승했다. 이로써 남북 단일팀은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시상식에서는 ‘아리랑’이 울려 퍼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2분 25초 092의 기록으로 단일팀에 불과 0.304초 뒤진 은메달을 가져갔다. 3위는 태국이다. 카누 여자 단일팀은 25일에는 200m 동메달을 획득, 역시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 사상 최초의 메달 획득을 달성한 바 있다. 지금까지 스포츠에서 남북 단일팀이 결성된 것은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과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세계탁구선수권,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 등 총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해당 대회 우승까지 차지한 것은 1991

년 세계탁구선수권 여자 단체전과 올해 세계탁구선수권 혼합복식 우승 이후 이번이 통산 세 번째다. 또 국제 종합대회 단일팀의 금메달 획득은 이번이 최초다. 단일팀은 오전 예선에서부터 금메달을 예감했다. 예선에서 2분 24초 044를 기록, 출전한 11개 나라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 인도네시아의 2분 27초 331과는 3초 이상 차이가 날 정도였다. 준결승에서도 단일팀은 2분 27초 203을 찍어 1

위로 결선에 진출하는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 수 위의 기량을 과시했다. 결선에서 남북은 250m 구간을 1분 12초 23에 달려 2위 중국에 0.16초 간만의 차로 앞섰다. 남북은 250m구간에서도 단일팀은 뒤심을 발휘하며 중국과 격차를 더욱 벌리며 치열했던 선두 경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남북 팀은 결선 진출에 실패했으나 순위전인 B파 이널에서 2분 20초 837로 1위를 차지, 출전한 11개 나라 가운데 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최복음 ‘최다 **금**’ 한걸음 가까이

男 볼링 6인조서 통산 5번째...강희원·이나영 부부 금메달 리스트

아시안게임 볼링에서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최복음(31·광양시청)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아시안게임 출전이다. 20살도 되기 전인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데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건 최복음은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고, 2014년 인천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하나 추가했다.

최복음은 지난 25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볼링 남자 6인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개인 통산 5번째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다. 특히 단체전인 2010년과 2014년 5인조, 이번 대회 6인조에서는 3개 대회 연속 우승팀의 일원이 되며 시상대 위에 우뚝 섰다. 최복음은 “단체전 금메달에 힘을 보탠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들 전에 열린 3인조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그는 “그때부터 잘 안되면서 ‘내 욕심으로 여기까지 와서 욕심으로 끝나는 건가’하는 마음에 죄송하고, 괜히 붙잡고 있는 느낌도 든다”고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5개에서 하나만 더하면 남현희(펜싱), 박태환(수영), 류서연(볼링) 등이 보유한 한국인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기록과도 동등이 된다.

그러나 최복음은 “아시안게임 5번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복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역시 볼링 선수 출신인 강혜은 씨와 결혼한 그는 “자금은 고교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며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아내에게 애뜻한 마음을 내보이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에 4회 연속 출전하고 금메달도 5개나 따낸 비결을 묻자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께 잘 배운 덕”이라며 “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겸손한 답변을 했다.

이번 대회에 금메달을 따고도 개인적으로 뭔가 잘 안된 것 같은 기분을 털어낼 계기는 귀국 후 이어지는 국가대표 평가전과 전국체전, 세계선수권 대회 등이다.

최복음은 “귀국하면 곧바로 대표 평가전부터 시작된다”며 “작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올리는 만회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희원(36·울주군청)과 이나영(32·용인시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부부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남자 6인조에서 남편 강희원이 금메달을 따고, 전날에는 이나영이 여자 6인조 정상에 오르면서 부부 금메달이 완성됐다. 둘은 4년 전인 2014년 인천 대회에서도 금메달 5개를 합작했지만 이때는 부부가 아니었다. /연합뉴스

성기라, 첫 정식종목 주짓수 **금**

남자배구 6강 PO 안착...女 양궁 컴파운드 내일 2연패 도전

명에 회복을 버리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6강 플레이오프(PO)에 진출했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남자배구 12강 토너먼트에서 파키스탄을 세트 스코어 3-0(25-19 25-22 25-17)으로 일축했다. 올 시즌 V리그부터 현대캐피탈에서 한술밥을 먹게 된 문성민과 전광인이 각각 19점, 18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정지석(대한항공)은 서브 에이스 3개를 곁들여 10점을 보였다. 한국은 팀 공격 성공률에서 52.70%로 파키스탄(44.78%)에 크게 앞섰을 뿐만 아니라 서브(6-0)

와 블로킹(7-6) 싸움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다. 다만, 네पाल을 차례로 꺾고 D조 1위로 1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한국은 3연승을 질주하며 6강 플레이오프에 안착했다. 한국은 태국-인도네시아전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6강 플레이오프를 벌인다. 양궁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단체전 은메달을 확보했다. 최보민(34·청주시청), 송윤수(23), 소재원(21·이상 현대모비스)으로 이뤄진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이란을 231-228로 꺾었다. 컴파운드 남녀 단체전 결승은 오는 28일 열린다.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컴파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오른 이후 2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사술(24·노스페이스 클라이밍)은 여자 콤파인 은메달을 획득했다. 사술은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콤파인 결선에서 스피드 1위, 불더링 4위, 리드 3위를 기록했다. 종합 점수 12점을 기록한 사술은 역시 12점의 노구치 아키요(일본)와 동률을 이뤘으나 노구치가 2개 종목에서 사술보다 좋은 성적을 내 금메달을 가졌다. 함께 출전한 김자인(30·디스커버리 ICN)은 15점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지난 25일 국내 주짓수 최강자인 성기라(21)는 여자 62kg급 결승에서 싱가포르의 티안 엔 콘스탄스 리언을 4-2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주짓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연합뉴스

오늘 별들이 쏟아진다

축구 손흥민·女 배구 김연경·프로게이머 이상혁 등 출격

27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인도네시아에 태극마크를 단 스타들이 대거 출동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은 4강 문을 두드린다.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27일 오후 6시(이하 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과 남자축구 8강전을 치른다. 대표팀에는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강장을 뚫을 수는 없다. 한국은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1-4로 충격 패했다. 후반 동점 골을 넣었지만, 연장전에서 3골을 내리 허용했다. 이번 8강전은 김학범 호의 아시안게임 2연패를 향한 관문이자 우즈베키스탄에 설욕할 기회다. 배구의 월드스타 김연경(타키 여자사바시)을 내세운 여자 배구 대표팀은 오후 9시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GBK) 배구장에서 대만과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 나선다. 남자축구와 마찬가지로 2연패를 노리는 여자배구는 이미 3승 1패로 8강행을 조기에 확정된 상태다.

세계랭킹 1위 중국에 세트스코어 0-3으로 완패했지만, 인도와 베트남에 승리를 거두며 B조 6개 팀 중 4팀이 진출하는 8강 티켓을 확보했다. 그러나 더 높은 순위로 조별리그를 마지려면 대만전 승리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이상혁(SK텔레콤 T1)도 자카르타에 출격한다. 비록 시범 종목이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선보이는 e스포츠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종목이다. 한국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스타크래프트 2’ 두 종목에 대표팀을 파견했다. LoL 대표팀은 이날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과 차례로 조별예선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페이커’ 이상혁, ‘기린’ 김기인(아프리카 프릭스), ‘스코어’ 고동빈(KT 롤스터), ‘피넛’ 한왕호(김준 드래곤X), ‘롤러’ 박재혁(Gen.G LoL), ‘코어장전’ 조승인(Gen.G LoL) 등 LoL 포지션별 최고의 게이머로 구성된 화호 군단이다. 남자농구 대표팀은 오후 12시 필리핀과 8강에서 격돌한다.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플레이어 조던 클락

슨을 앞세운 필리핀은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는 한국의 난적으로 꼽힌다. 필리핀은 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주전 가드인 클락슨의 합류로 전력을 단숨에 끌어 올렸다. 한국 대표팀은 귀와 선수 라건아(199cm)와 이승현(197cm) 등을 내세운다. 양궁은 금빛 과녁을 정조준한다.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개인전 결승 탈락의 충격을 뒤로하고 단체전 결승에 출전,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장혜진(LH), 강재영(경희대), 이은경(순천시청)으로 이뤄진 여자 리커브 대표팀이 이번 결승전에서 승리하면 1998 방콕 아시안게임 이후 6연패 대기록을 수립한다. 남자 리커브 단체도 함께 결승에 진출, 동반 금메달을 노린다. 오진혁(현대제철),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국군체육부대)은 1982년 뉴델리 대회부터 8회 연속 패권을 지켜오다 2014년 인천 대회에서 중국에 빼앗겼던 금메달을 8년 만에 되찾겠다는 각오다. 양궁 컴파운드 혼성 김중호(현대제철)와 소재원(현대모비스)도 같은 날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도로 종목에서 나주 출신의 나야름(상주시청)을 앞세워 금메달 2개를 수확한 사이클은 트랙으로 무대를 옮겨 금빛 질주를 이어간다. 남자 단체 스피리트, 여자 단체 스피리트, 여자 매디슨 등 유망 종목이 모두 트랙 경기 첫날인 27일 열린다. /연합뉴스